

대한갑상선학회, 10년, 그리고 미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내과²

박영주¹, 송영신¹, 이가희^{1,2}

Ten Years of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Achievement and Future

Young Joo Park¹, Young Shin Song¹ and Ka Hee Yi^{1,2}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², Seoul, Korea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KTA) is a multi-disciplinary organization founded by various Korean societies involved in thyroid disease. The KTA has become a foundation ston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thyroidology in Korea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 of multi-discipline for the past 10 years. On February 16, 2008, the inaugural conference was held with great success. Since then, in a short period of 10 years, the number of lifetime members of the KTA reached 623. On March 29, 2012, the KTA became an approved organization by Korean Medical Association within the record time of 4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In terms of patient care, mutual cooperation among experts in the various fields of thyroid disease have been promoted based on the KTA. On the academic side, the number of papers were awarded and publish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or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finally, the research on thyroid disease in Korea has reached the global level. The KTA is a multi-disciplinary society consisting of expert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internal medicine, surgery, otolaryngology, nuclear medicine, radiology, and pathology. The reason why the KTA has achieved unparalleled growth is that all the KTA members, including senior professors who served as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and incumbent executives, have been harmonized and developed together. Here, we review the activities of the KTA for 10 years from its establishment, and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TA.

Key Words: Korean Thyroid Association, Ten years, Achievement, Future

서 론

대한갑상선학회는 갑상선 진료에 관여하는 여러 유관학회가 참여하여 창립한 다학제 학회로서, 지난 10년간 다학제라는 특성을 잘 살려 우리나라 갑상선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 2008년 2월 16일, 48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갑상선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후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평생 회원 수가 623명에 이르고 (Fig. 1), 2012년 3월 29일, 창립 후 4년이라는 기록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대한의학회의 인준학회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대한갑상선학회라는 학회를 기반으로 환자 진료에 있어서 갑상선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 증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국제학회에서 발표 및 수상,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수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루어 우리나라 갑상선학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대한갑상선학

Received March 17, 2018 / Revised April 29, 2018 / Accepted May 8, 2018

Correspondence: Ka Hee Yi, MD, Ph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Medical Center, 20 Boramae-ro 5-gil, Dongjak-gu, Seoul 07061, Korea

Tel: 82-2-870-3203, Fax: 82-2-870-3866, E-mail: imykh@naver.com

Copyright © 2018,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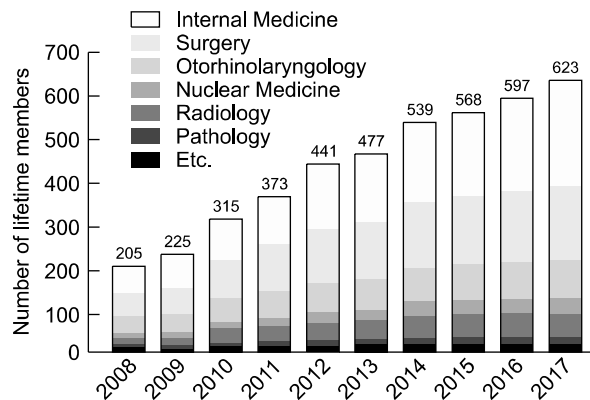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lifetime members of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by year.

회가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여서 이룬 다학제 학회로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회장, 부회장 등을 역임하신 원로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한갑상선학회에 참여한 모든 과가 화합과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함께 발전해 왔기 때문이며, 더불어 이를 위해 헌신한 임원진의 노고가 숨어있다. 본 고에서는 대한갑상선학회의 창립 이후 2017년까지 10년 동안의 학회 활동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대한갑상선학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상세한 자료는 대한갑상선학회 10년사¹⁾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론

학술대회의 발전

매년 두 차례 서울과 지방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갑상선학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우리나라 갑상선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장이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최신지견을 소개하는 심포지엄, 갑상선질환의 병태생리, 진단, 치료 등에 대한 교육 세션, 갑상선 전문 간호사 교육 세션, 임상 및 기초 연구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기법을 소개하는 연구위원회 세미나, 갑상선 병리의 표준 지침을 이끌어 내는 내분비병리연구회 심포지엄 등이 마련되어, 참여 회원들이 갑상선학의 최신지견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국내외에서 갑상선학 분야에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연자를 초청, 기초 강연을 마련하였고, 역사, 과학,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이루어진

특강(special lecture), 범산 학술상 수상 강연 및 회장 강연, Meet-the-professor 등의 특별한 강연 시간이 마련되었다.¹⁾

학술대회 중에는 갑상선질환 진료의 표준 지침 또는 권고안 마련을 위한 패널 토의 및 공청회도 개최되었는데, 갑상선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이나, 전문가 사이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은 토의를 함으로써 의견을 모으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구연과 포스터 발표는 학술대회의 꽃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회원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배우는 장이 되었으며, 특히 2011년 추계학술대회부터는 “토픽 하이라이트” 세션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선정된 우수연제를 별도로 모아 발표하게 되어 회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폐회식에서는 우수한 연제에 대해서 우수연제상을 시상하였다.

학술상

대한갑상선학회에서는 범산학술상을 위시하여 창립 당시부터 다양한 학술상을 제정하여, 회원들의 갑상선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 활동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산학술상은 갑상선학 분야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하신 故 범산(凡山) 고창순 선생님(1932-2012)의 뜻에 따라 200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매년 대한갑상선학회 및 갑상선학 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평생 회원에게 수여되고 있으며, 춘계학술대회에서 범산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우수 논문의 주저자에게 수상 강연과 함께 젠자임학술상(2007-2016)이 수여되었고, 학회 및 갑상선학 연구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회원에게 이종석 선생님이 제정하신 소헌학술상(2013-2015)이 수여되었다. 갑상선학 분야의 기초 및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갑상선학회-한미약품 학술상(2010-2016)이 수여되었으며, 2018년 각각 대한갑상선학회 우수학술상과 젊은 연구자상으로 변경된 대한갑상선학회 유유제약 학술상(2010-2017, 만 45세 이상)과 대한갑상선학회 일성학술상(2010-2017, 만 45세 미만)을 제정하여 갑상선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신진 회원들의 국제학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광약품 및 다림양행과 공동으로 갑상선 관련 4대 국제학회대회에 참가하여 연제를 발표하는 만 40세 미만의 평생 회원들을 지원하는 대한갑상선학회 부광-다림학술상을 창립 당시부터 지

속해서 수여하고 있다(2007 이후).¹⁾

갑상선학 연구의 비약적 발전과 세계적인 위상

대한갑상선학회 학술대회를 통한 활발한 학술교류와 이를 고취시킨 학술상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갑상선학 분야의 연구 역량은 대한갑상선학회 창립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하였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의 갑상선학술대회인 아시아-오세아니아 갑상선학회(Asia-Oceania Thyroid Society, AOTA)에서 대한갑상선연구회 기간에는 전체 발표논문 중 최대 12.4%, 대한내분비학회 갑상선분과회 기간에는 최대 22.8%를 차지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발전을 보였던 우리나라는, 대한갑상선학회 창립 이후 전체의 약 40%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하는 도약을 보였으며, 세계갑상선학회에서도 2000년, 2005년 각각 13편과 24편을 발표하였던 것에 비해 2010년 110편(전체 참여국 중 3위), 2015년 120편(전체 참여국 중 2위)의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Fig. 2). 2012년 AOTA에서 송영기 교수가 AOTA prize (Prize Lecture: Post-operative follow-up of patients with thyroid cancer)를, 2015년 세계갑상선학회(International Thyroid Congress, ITC)에서는 4명의 신진 회원들이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1989년 제4회 AOTA에 이어 28년 만에 다시 제12회 AOTA를 개최하게 되었다. 2017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AOTA에는, 25개국에서 592명이 참가하였는데 발표된 논문의 질과 양 모두에서 역대 최고의 학회로 국내외에서 평가받았으며 학술 교류뿐 아니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국제학회에서의 발표 논문 수의 현저한 증가는 국제

학술지 게재논문 수의 비약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PubMed에 등재된 대한갑상선학회 회원의 논문 수는 창립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4년 이후 연 200편을 넘는 활발한 연구 활동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ig. 3).

학회지의 창간 및 발전

대한갑상선학회 창립 후 2008년 5월 30일 “대한갑상선학회지(Journal of Korean Thyroid Association)”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그해 5월과 11월 연 2회 발간된 학회지는 2011년 1월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를 거쳐, 2015년 1월 이후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재되어 있다. 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2015년 11월 학회지의 명칭을 현재의 International Journal of Thyroidology (IJT)로 변경, 영문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게재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에 대해서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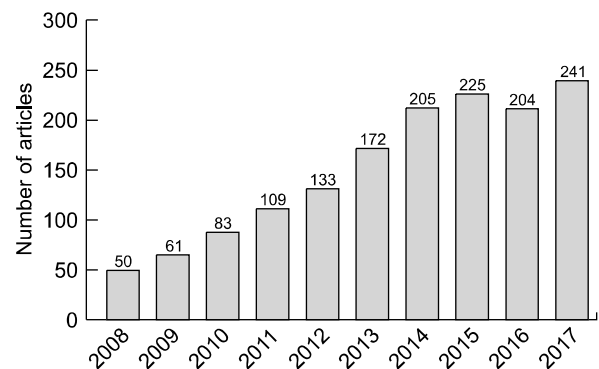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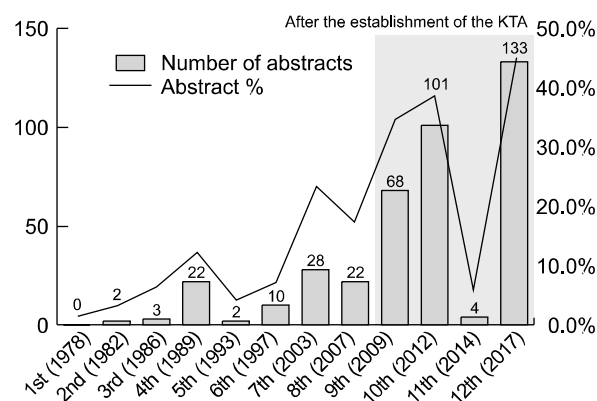


Fig. 3. Number of articles by Korean Thyroid Association (KTA) members listed in PubMed by year. *It is based on the name and affiliation registered in the KTA and may not be accurate.

A Presentations at the Asia & Oceania Thyroid Association (AOTA)



B Presentations at the International Thyroid Congress (I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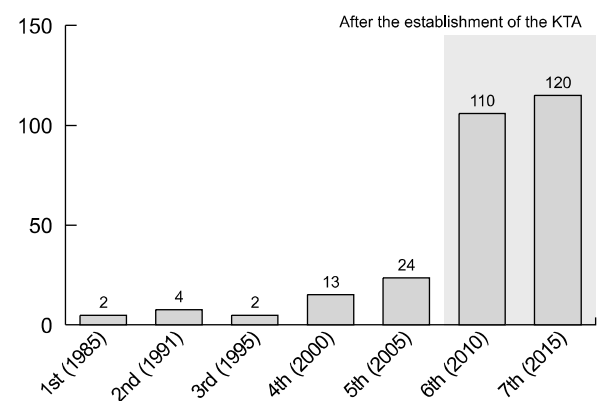


Fig. 2. Status of paper presentation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우수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연수강좌

2008년 추계학술대회부터 매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학술대회에 이어서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별도로 연 1-2회 다른 지역에서도 연수강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17회가 진행되었다. 학회 회원들뿐 아니라 지역 개원의들에게도 갑상선질환의 최신지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는 개원의 연수강좌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연수강좌는 광주, 대전, 목포, 울산, 원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일차 의료기관에서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갑상선질환을 중심으로, 최신의 진료 노하우를 전달하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¹⁾ 2017년 AOTA에서는 초음파실습교육을 시작하여 점차 중요시되는 임상상의 갑상선초음파검사 수행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갑상선 분야의 진료지침제정과 환자 교육

우리나라의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은 2007년 대한내분비학회 갑상선분과회의 주도로 처음 제정되어 유관학회지에 게재되었다.²⁾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회, 그리고 대한핵의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지침 제정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초안이 만들어졌다. 초안은 2006년 발표된 미국갑상선학회의 권고안³⁾을 기초로 하고, 일부는 2005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권고안⁴⁾을 따랐다. 두 번의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각 학회의 중견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였다. 대한신경두경부 영상의학회 갑상선연구회, 대한병리학회 내분비병리동호회 및 대한세포병리학회로부터 자문을 구하였다. 대한갑상선학회 창립 후에는 2010년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 개정안’⁵⁾을 필두로 갑상선질환의 표준화된 진료를 위하여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다학제적 구성된 진료지침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상에 중요한 갑상선질환에 대한 근거 중심 진료권고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진료지침제정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패넌토의를 통해 진료지침의 제정 근거 등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본을 대한갑상선학회지에 게재하고 있다. 2013년 5월 발표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 및 치료-대한갑상선학회 합의안’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형적

인 증례의 치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⁶⁾ 2014년 5월 발표된 ‘임신 중 및 산후 갑상선질환의 진단 및 치료권고안’ 제정 작업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추천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같이 참여하였다.⁷⁾ 2016년 11월에는 2010년에 이어 “2016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권고안 개정안”을 제정하였는데,⁸⁾ 특히 결절에 대한 미세침흡인세포검사 크기 기준 등에 대해 우리나라 영상의학 전문의들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한국 갑상선판독데이터 체계(Korean Thyroid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K-TIRADS)를 도입하여 제정하였다. 또한,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대한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2012년 대한갑상선학회지에 발표⁹⁾하고 환자안내서를 제작하여 각 병원에 배부함으로써 공통된 준비과정을 거쳐 방사성요오드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환자들이 겪는 혼란을 예방하였고 부작용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갑상선질환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www.thyroid.kr/>).

갑상선초음파검사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 및 이에 대한 학회의 대처

대한갑상선학회의 창립에는 갑상선 환자, 특히 갑상선결절과 갑상선암 환자의 증가에 따른 진료협력과 지식 공유의 필요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갑상선암 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갑상선초음파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진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학회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갑상선 초음파검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은, 2009년 11월에 대한내분비학회에서 기획한 Endocrine Issues and Positioning 회의의 일환으로 대한내분비학회-대한갑상선학회 공동으로 주관한 회의에서였는데, 다음과 같은 학회 입장에 대한 성명(position statement)을 결정하여 2009년 12월 의협신문에 발표하였다.

- 1) 스크리닝을 통한 건강상의 이득의 증거가 아직은 없어서 하여라 말라 할 수 없다.
- 2) 고위험군에서는 필요하다.
- 3) 스크리닝 효과를 알기 위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위한 초음파검사의 유용성 근거 확보를 위한 TFT’를 결성

하고, “초음파 선별검사가 갑상선암 조기 발견 확률을 높이고, 재발, 사망 위험을 줄일까?”와 “초음파검사는 갑상선암 선별에 정확한 검사인가?”라는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근거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를 주제로 2013년 8월 대한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개토론을,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과 원탁회의를 거쳐 12월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갑상선암의 증가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아직까지는 갑상선암 발생을 증가 원인에 대해 규명된 바 없다. 다만 이러한 갑상선암의 증가가 검진으로 인한 조기발견으로 추정되나,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소인 등이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3)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검토한 결과 무증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선별검사) 및 이를 통한 조기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근거가 현재까지는 불충분(insufficient)하였다. 4) 현재까지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국가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¹⁰⁾

이와 별도로 2013년 7월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본부 암검진사업과에서 기존의 ‘국가 암검진권고안’의 개정 사업의 일환으로 암 발생률 1위인 갑상선암에 대한 조기 검진 효과 및 근거 평가를 통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개발을 위해 초음파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가 갑상선암의 사망률 또는 중증도를 낮추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작업을 진행, 2014년 4월 ‘무증상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를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very low, I)’는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공청회 ‘암정보포럼’이 2014년 7월 개최되었다. 이후 “보다 확실한 초음파검사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해달라”,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위해(harm)로 갑상선암 치료에 따른 갑상선절제술의 위해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의 선별검사에 대해 이득과 위해의 균형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2)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일상적 선별검사로 권고하지는 않는다. 다만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3) 잠재적 이득으로

초음파검사는 촉진에 비해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에 더 유리하므로 질병의 중증도 및 치료의 강도(수술의 범위, 방사성요오드 투여 여부, 갑상선호르몬 복용 여부 및 용량 등)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잠재적 위해로 갑상선암 검진은 과잉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갑상선암으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 드물지만, 목소리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 부갑상선기능저하로 인한 지속적인 칼슘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갑상선 수술의 범위에 따라 갑상선호르몬을 영구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4) 본 권고안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목에 만져지는 혹 등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검사를 포함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갑상선암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이미 검사를 통해 갑상선결절이 발견된 경우는 본 검진 권고안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련 진료지침을 따른다.”라는 최종안을 도출, 2015년 4월 대한의사협회지에 “갑상선암 검진권고안”을 발표하게 되었다.¹¹⁾ 이는 갑상선 초음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대한갑상선학회에서 근거를 제시하여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기타 학술활동

대한갑상선학회는 국내외 여러 기관과 협력, 갑상선학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의료진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의사들을 교육한다는 취지 하에 Genzyme사의 후원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3일간 제1회 Asian Masterclass of Thyroid Cancer를 서울아산병원 강당에서 시행하였다. 제2회 모임은 2013년 5월 31일부터 2일간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개최되었고 각각의 발표 내용으로 “Thyroid Cancer 2011”, “Thyroid Cancer 2013” 제목으로 Proceeding을 발간하였다. 2013년 11월 갑상선관련 주요 학회에 소개된 내용 중 공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정리-소개하는 잡지를 발간함으로써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치 아래 ‘Thyroid Update’라는 대한갑상선학회 자매지를 만들기로 하여 2014년 3월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당시 이사장 정재훈을 편집위원장으로 하여 총 13명의 편집위원이 구성되었다. 2014년 10월 2호, 2015년 4월 3호, 그리고 2015년 10월 4호까지 발간하였다. 방사선보건연구원 등의 국내 갑상선연관 기관과 협동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는데, 2016년 12월 2일에는 “방사선과 갑상선암”을 주제로 대한갑상선학회-방사선보건원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차원 자료 제공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갑상선학의 기본 역학 데이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산하 제6차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6th, KNHANES VI)의 항목으로 갑상선 관련 항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 국민 중 무작위로 추출된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혈중 유리 T₄, TSH, 항TPO 항체, 요중 요오드 농도 측정, 우리나라의 요오드 섭취 현황 및 갑상선기능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역학 데이터를 마련하였다.¹²⁻¹⁵⁾

결론

대한갑상선학회는 지난 10년간, 다학제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갑상선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회가 청년기에 들어선 만큼 다학제, 다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가 활성화될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학회가 주도하는 질환 별 등록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각종 갑상선질환에 대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하겠다. 창립 이후 이룬 세계 갑상선학을 선도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향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한갑상선학회의 중단 없는 발전이 기대된다.

“화합의 10년으로 이룬 발전, 비상의 100년으로 함께 이어갑시다!”

중심 단어: 대한갑상선학회, 10년, 성취, 미래.

References

- 1) Korean Thyroid Association. *Korean Thyroid Association 10 Years History*. Seoul, Korea: Mincom; 2018. p.82-141.
- 2) Kim WB, Kim TY, Kwon HS, Moon WJ, Lee JB, Choi YS, et al. Management guidelines for patients with thyroid nodules and thyroid cancer. *J Korean Endocr Soc* 2007;22(3):157-87.
- 3) Cooper DS, Doherty GM, Haugen BR, Kloos RT, Lee SL, Mandel SJ, et al. Management guidelines for patients with thyroid nodules and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Thyroid* 2006;16(2):109-42.
- 4)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 Thyroid carcinoma, version 1*, 2005. [cited May 9, 2018]. Available from: URL: http://www.nccn.org/professionals/physician_gls/PDF/thyroid.pdf.
- 5) Yi KH, Park YJ, Koong SS, Kim JH, Na DG, Ryu JS, et al. Revised Korean Thyroid Association Management Guidelines for patients with thyroid nodules and thyroid cancer. *Endocrinol Metab* 2010;25(4):270-97.
- 6) Yi KH, Moon JH, Kim IJ, Bom HS, Lee J, Chung WY, et al.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hyperthyroidism consensus - report of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J Korean Thyroid Assoc* 2013;6(1):1-11.
- 7) Yi KH, Kim KW, Yim CH, Jung ED, Chung JH, Chung HK, et al.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yroid disease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J Korean Thyroid Assoc* 2014;7(1):7-39.
- 8) Yi KH, Lee EK, Kang HC, Koh Y, Kim SW, Kim IJ, et al. 2016 Revised Korean Thyroid Association Management Guidelines for patients with thyroid nodules and thyroid cancer. *Int J Thyroidol* 2016;9(2):59-126.
- 9) Kang S, Kim BI, Kim IJ, Bom HS, Lee GH, Lee J, et al. Radiation safety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thyroid disease by 131I. *J Korean Thyroid Assoc* 2012;5(1):6-14.
- 10) Shin S, Park SE, Kim SY, Hyun MK, Kim SW, Kwon JW, et al. Effectiveness of ultrasonographic screening for thyroid cancer: round-table conference in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in conjunction with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Asian Pac J Cancer Prev* 2014;15(12):5107-10.
- 11) Yi KH, Kim SY, Kim DH, Kim SW, Na DG, Lee YJ, et al. The Korean guideline for thyroid cancer screening. *J Korean Med Assoc* 2015;58(4):302-12.
- 12) Kim WG, Kim WB, Woo G, Kim H, Cho Y, Kim TY, et al. Thyroid stimulating hormone reference range and prevalence of thyroid dysfunction in the Korean populatio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3 to 2015. *Endocrinol Metab* 2017;32(1):106-14.
- 13) Jeon MJ, Kim WG, Kwon H, Kim M, Park S, Oh HS, et al. Excessive iodine intake and thyrotropin reference interval: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yroid* 2017;27(7):967-72.
- 14) Park SY, Kim HI, Oh HK, Kim TH, Jang HW, Chung JH, et al. Age- and gender-specific reference intervals of TSH and free T₄ in an iodine-replete area: data from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V (2013-2015). *PLoS One* 2018;13(2):e0190738.
- 15) Lim HJ, Ahn SH, Hong S, Suh YJ. The relationship between subclinical thyroid disease and cardiovascular disease risk score in Koreans. *J Korean Med Sci* 2017;32(10):1626-32.